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Peer Status and Friendship as Predictors of
Children's School Adjustment

이 은 해*

Rhee, Unhai

김 정 윤**

Kim, Jung Yoon

오 원 정***

Oh, Wonjung

ABSTRACT

Peer status, friendship, and school adjustment were measured for 326 third and fourth graders (171 boys, 155 girls). School adjustment was assessed by academic performance, and social behaviors were rated by teachers while attitudes toward school were reported by children. Examination of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peer status and friendship to school adjustment revealed both unique and joint explanations.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was mainly explained by peer status; popular children had higher performance than rejected children. Attitudes toward school were more positive for children who reported higher friendship quality. Prosocial behaviors were higher for the popular group and for children with more stable reciprocal friends; aggressive behaviors were higher for the rejected group and competitive children with close friends; withdrawal behaviors were higher for the neglected group and children with few reciprocal friends.

Key Words :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친구관계(friendship), 또래지위(peer status)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조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I. 서론

아동은 출생과 함께 가정 내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성장해 가지만, 아동기에 이르면 생활의 장이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확대된다. 학교환경, 특히 초등학교는 아동에게 다양한 발달적 과제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적응은 이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학교적응은 다양한 측면에서 개념화될 수 있다. 적응을 인간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정도(Belsky, Lerner, & Spanier, 1984)라고 정의한다면, 학교 적응은 학교라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동이 학교 환경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목표로 인지적 과제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측면에서도 조화를 이루고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와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교 적응은 “인지 및 사회·정서적으로 학교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학교적응은 아동이 학업에서 성취를 보이고, 학교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사회·정서적 행동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도로 개념화하고자 한다(Berndt, 1999).

최근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결정요인을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 왔다. 연구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진 변인에는 아동의 성, 인지 요인, 행동적 특성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아들의 자아지각이 남아에 비해 낮고 부정확하며, 남아들이 행동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고 한다(Ladd & Price, 1986). 또한 아동의 지능과 기초학습 기능은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를 예언하며, 친사회성이나 공격성 같은 행동적 특성은 또래 거

부와 학교 기피 등을 예언한다(Parker & Asher, 1987). 아동의 개인적 특성 외에 가족관계내의 경험도 학교 적응과 관계가 있다. 즉,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또래관리 방식은 또래 적응에 관련되며(Ladd & Hart, 1992), 가족내에서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되는 정도는 아동을 부적응의 위험에 처하게 한다(Germezy, Masten, & Tellegen, 1984).

아동의 또래관계가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기여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연구자들의 관심이 비교적 적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래관계를 개념화하는 방식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Ladd & Kochenderfer, 1996). 최근 또래간의 경험을 개념적으로 그리고 방법론 측면에서 보다 명료화하려는 시도들이 생기면서, 또래지위(peer status)와 친구관계(friendship)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Bukowski & Hoza, 1989; Vandell & Hembree, 1994). 또래지위는 아동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일반적으로 수용 또는 거부되는 정도에 따라 생기는 집단내의 위치를 의미한다. 반면, 친구관계는 아동에 의해 자발적으로 맺어지는 이원적 관계(dyadic relationship)로 친밀감과 상호성(reciprocity)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또래 경험을 적응에 연결시킨 초기 연구들은 주로 또래지위에 따른 사회적 행동 및 적응에서의 차이에 관심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또래로부터 수용도가 높고 인기있는 아동은 거부아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을 하고 지도력이 있으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는 반면, 거부아들은 대체로 또래에게 공격적이고 학업성취가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Coie, Dodge, &

Kupersmidt, 1990; Parker & Asher, 1987).

광범위한 문헌 고찰을 기초로 Parker와 Asher (1987)는 또래 수용도와 부적응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을 두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첫 번째 모델은 또래 상호작용에서의 행동 문제, 즉 공격성이나 위축 행동 등이 또래지위를 저하시키고 이에 따라 부적응적 결과(예; 학교 중퇴, 범죄, 정신병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서 또래관계가 부적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모델은 또래관계의 간접적 연관성을 주장한 것으로서, 개인의 부적응적 특성에 따른 개인차가 문제 행동을 유발하여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또래 거부와 무시로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이 두 가지 모델외에 Kupersmidt, Coie와 Dodge(1990)는 긍정적 또래관계가 부적응의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발달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또래경험이 아동의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몇몇 연구자들과 견해를 함께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또래지위는 아동의 부적응을 더 효과적으로 예언하며, 친구관계는 도덕성 발달, 자아존중감 증진 등 긍정적 측면에 더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ukowski & Hoza, 1989; Vandell & Hembree, 1994). 특히 또래에게 거부되거나 무시되는 아동의 경우 부적응의 위험은 높지만, 이들이 친밀한 친구관계를 갖고 있을 때 친구관계는 부적응의 위험을 낮추고 문제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Newcomb & Bagwell, 1996; Parker & Asher, 199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학교 적응은 아동의 개인적 속성, 가족내에서의 경험, 또래지위 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연구자들은 아동이 맺고 있는

관계변인들을 모델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Bukowski, Newcomb, & Hartup, 1996). 특히, 관계변인 중에서도 아동이 동등한 수준에서 또래와 개인적으로 맺는 친구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친구관계를 개념화하는 데는 Hartup(1996)이 주장하는 친구관계의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차원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가 여부 또는 얼마나 많이 있는가이며, 둘째로는 어떤 친구인가, 즉 친구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마지막으로 친구관계의 질적 측면으로서 친구가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능을 하며, 대인 욕구를 충족시키는가이다. 따라서 친구관계를 적응과 관련시킬 때, 어느 차원인가에 따라 연구결과에 상당한 차이와 해석의 다양성을 예측할 수 있다. 과거의 이 분야 연구들은 대체로 친구관계의 세 차원 중 어느 한 두 차원에 기초하여 측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Bukowski et al., 1996), 친구관계를 다차원적으로 간주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먼저 친구가 있는가, 특히 상호적 친구(mutual friendship)의 유무와 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Howes(1988)의 연구에서 상호적 친구를 가진 아동은 놀이집단에 쉽게 끼여들고, 협동 놀이에 더 많이 참여하며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다고 하였다. Ladd(1990)에 의한 단기 종단적 연구에서도 취학전에 알고 있던 친구가 새 학교의 유치원 학년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고, 새로 사귄 친구의 존재는 학습에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안정적인 친구의 존재는 학교의 적응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친구를 가진 아동은 더 적절한 사회적 기술 능력을 보이고, 또

래에게 더 인기있으며, 이타적이고 조망수용능력이 우수하였다(McGuire & Weisz, 1982). 이처럼 상호적인 친구의 존재와 친구관계의 안정성은 대체로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친구의 특성과 학교적응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제한되어 있으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아동은 그들과 비슷한 아동에 의해 선택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어(Snyder, Dishon, & Patterson, 1986) 친구의 긍정적 효과 뿐 아니라 부정적 효과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Berndt와 Keefe (1995)는 7, 8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기 종단적 연구를 통해 친구의 방해행동이 높을 때 5, 6개월 후 대상 아동은 더 방해행동을 하는 아동으로 변하고, 친구의 학교성적이 좋았을 때 더 성적이 증진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Berndt, Hawkins와 Jiao(1999)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아동의 중등학교 전이에 따른 적응을 살펴보았는데, 친구가 사회적 유능성을 높게 지각하면, 대상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증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친구의 특성에 의해 그 특성과 유사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았다. 또한 문제행동이 많은 친구와 안정적인 친구관계를 가진 아동은 행동문제가 증가하였다. 이는 친구특성과 친구관계의 질 또는 안정성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의미하며, 친구관계의 질과 안정성은 행동문제를 가진 친구의 영향을 확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친구관계의 질이 학교 적응 및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Ladd, Kochenderfer와 Coleman(1996)의 연구는 유치원 시기에 측정한 친구의 지원이 학교 입학 후의 적응을 예언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친구의 지원이 학교에 대한 태도의 향상을 예언하고, 반면 친구관계에서의 갈등은 남아의

학교 부적응상 지표, 즉 외로움, 학교기피 및 낮은 참여도 등과 관계가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Berndt와 동료들의 연구(1999)에서 6학년 때 친구관계 질과 안정성은 중등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즉 친구관계의 질이 높고 안정적인 때 아동의 사회성 및 지도력이 증가하였다. Berndt(1989)는 친구관계 변인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의 전이에 따른 발달적 결과를 예측했을 때, 친구유무, 관계의 안정성, 친구관계의 질적 차원은 각기 다르게 발달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의 지원적 특성은 긍정적 태도를 예측하였다고 한다.

한편, 친구관계의 질은 심리적 적응의 지표가 되는 자아지각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erndt와 Keefe(1995) 등의 연구에서 지지된 바와 같이, 친구관계의 질에서 긍정적 특성은 자아지각 및 적응과 정적 관계를, 부정적 특성은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가까운 친구와 잘 지내지 못할 때 후에 학교에서 문제 행동이 더 유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문헌 고찰을 종합하면, 학교적응에 또래관계가 미치는 영향은 또래지위 뿐만 아니라 친구관계까지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또래경험의 두 가지 유형인 또래지위와 친구관계가 각각 고유하게 설명에 기여하는 적응의 영역이 있는지, 또는 두 변인이 함께 설명한다면 어떤 상대적 기여도와 관련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 연구들이 또래지위는 아동의 부적응을 예측하며, 친구관계는 긍정적인 발달에 더 관련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Bukowski & Hoza, 1989). Vandell과 Hembree(1994)에 의하면 또래지위와 친구관계는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 학업능력, 자아개념에 각각 독특한 기여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Ladd, Kochenderfer와 Coleman(1997)도 또래관계의 유형에 따라 학교적응에 관여하는 방식이 적응의 측면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경험의 두 가지 유형인 또래지위와 친구관계가 학교적응과 어떻게 관련되며 적응의 각 측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은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아동의 학업 성취

도, 학교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사회적 행동의 세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교적응은 또래지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둘째, 아동의 친구관계는 학교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학교적응은 또래지위와 친구관계 변인에 의해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1개 초등학교를 임의 선정하고 3학년과 4학년 학급에 속한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3학년 6개 학급 중 1개 학급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기에 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조사 시기에 결석한 아동과 자료의 누락이 있는 아동을 제외한 후 3학년 5개 학급 129명(남아 71명; 여아 58명), 4학년 6개 학급 197명(남아 100명; 여아 97명)으로 총 326명이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한편 연구문제 중에서 또래지위집단에 따른 차이를 검증할 경우에는 총 326명에 대한 또래지명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Coie와 Dodge(1983)의 절차에 따라 5개 지위 집단으로 나누고, 그 중 양면성 아동 집단을 제외한 후 가장 작은 집단의 사례수인 41명씩 각각 4집단에서 무선표집하여 16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양면성아 집단을 제외시킨 이유는 사례수가 작고 해석의 모호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는 또래지위를 조사하기 위한 또래지명 검사, 친구관계 변인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 그리고 학업 성취도와 사회적 행동을 위한 평정척도, 학교에 대한 태도 척도가 있다.

1) 또래지명 검사

또래지명 검사는 동성인 학급 아동의 명단을 제시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 “생일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를 각각 3명씩 지명하게 하고, 동일한 질문에 대해 함께 하기 싫은 친구도 각각 3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또래지명 검사 결과 각 아동이 모든 동성 급우로부터 받은 긍정적 지명수의 합과 부정적 지명수의 합을 학급별로 각각 표준화하여 z점수로 환산한 후 사회적 선호와 사회적 영향 점수를 계산하고, Coie와 Dodge(1983)의 기준에 따라 인기아, 보통아, 무시아, 거부아, 양면성아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선호 점수는 긍정적 지명 점수에서

부정적 지명 점수를 감산하여 구하고, 사회적 영향 점수는 긍정적 지명 점수와 부정적 지명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2) 친구관계 변인

친구관계 변인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는 아동과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의 이름과 사귄 기간(년, 개월)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부분,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응답하는 “친구관계의 질 척도”(이은혜·고윤주, 1999)로 구성되어 있다. 친구관계의 질 척도는 9개 하위 영역별 4문항씩 총 36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아주 조금 그렇다”(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척도의 하위 영역은 친구의 긍정적 기능인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밀감’, ‘인정’, ‘교제의 즐거움’의 6개 영역, ‘갈등’과 ‘경쟁’의 부정적 영역 2개, 그리고 친구에 대한 전반적 만족을 측정하는 ‘만족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본 연구 대상에게 적용했을 때, 영역별로 .75~.89였다. 친구관계의 질 척도에서 각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의 긍정적 기능, 부정적 특성, 또는 만족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장 친한 친구와 사귄 기간을 개월로 환산하여 친구관계의 ‘안정성’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친구관계 변인의 또다른 변인은 ‘상호적 친구수’로서 앞에서 서술한 또래지명 검사의 2개 긍정적 문항에 대해 각각 3명씩 지명한 6명 중 서로 친구로 선택한 경우가 몇 명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상호적 친구의 범위는 0에서 6이며, 숫자가 많을수록 상호 선택한 친구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3) 학교 적응 변인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하여 학업 성취도, 사회적 행동, 학교에 대한 태도의 3가지 변인을 측정하였다.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사회적 행동은 교사의 평가에 의해 자료가 수집되었고, 학교에 대한 태도는 아동이 설문지 형식에 응답하였다.

(1) 학업성취도

초등학교에서 수행평가가 권장됨에 따라 아동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해 객관식 검사를 적용하지 못하였고 담임 교사로 하여금 국어, 수학, 자연, 사회 과목에서의 수행 정도를 4단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1단계는 학급 내에서 최하위 20%인 아동, 2단계는 그 다음 30%, 3단계는 중상의 30%, 4단계는 최상위 20%인 아동으로 분류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단계별로 1에서 4의 점수를 부여하고 전체 평균은 4과목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을 내어 산출하였다.

(2) 사회적 행동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임연진(1999)의 사회적 행동 평정척도 29문항 중에서 영역별로 요인부하량이 높은 13개 문항을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교사는 아동에 대한 평소의 관찰에 기초하여 각 문항의 행동을 아동이 얼마나 빈번하게 보이는지에 따라 1점(전혀 아니다), 2점(가끔 그렇다), 3점(자주 그렇다) 중의 하나를 선택해 평가하였다. 본 연구자료로 13문항 척도를 요인분석하여 3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친사회성/사교성(6문항, $\alpha=.81$), 과활동/공격성(4문항, $\alpha=.80$), 불안/위축(3문항, $\alpha=.67$)으로 이루어졌다.

(3) 학교에 대한 태도

학교에 대한 태도 척도는 아동이 학교 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해 갖는 느낌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예비조사에서 3, 4학년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학교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개별 면접을 하여 광범위한 반응을 수집하였고, 이를 내용분석한 후 27문항의 4단계 척도(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그렇다, 4: 정말 그렇다)를 개발하였다. 문항 예를 보면, ‘학교는 재미있는 곳이다’, ‘나는 선생님을 좋아한다’, ‘나는 학교공부가 어렵다’ 등이다. 태도 척도를 본 조사 대상 아동에게 실시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학교에 대한 선호(7문항, $\alpha = .85$), 학업에 대한 태도(6문항, $\alpha = .70$), 선생님에 대한 태도(3문항, $\alpha = .73$), 급우에 대한 태도(3문항, $\alpha = .63$), 학교에 대한 부정적 감정(8문항, $\alpha = .64$)의 5개 요인으로 묶여 총 변량의 4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 총점과 하위 요인 간의 상관은 -.68에서 .84였고 문항 전체에 대한 Cronbach α 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학교에 대한 태도 총점은 ‘학교에 대한 부정적 감정’ 영역에 속한 문항을 역채점하고 다른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후 총 문항수

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3. 연구의 절차 및 분석

본조사는 1999년 10월 초에 이루어졌으며, 훈련된 조사자 4명에 의해 각 학급에서 집단으로 실시되었다. 실시과정에서 응답 내용은 비밀로 할 것임을 주지시켰다.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지명 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친구관계의 질 질문지를 실시한 후 학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아동의 질문지 응답시간은 20분~35분 정도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version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Cronbach α 를 산출하고 기술적인 자료로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래지위에 따른 학교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F 검증을 하였다. 친구관계변인과 학교적응 변인간의 관련성은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으며,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또래지위와 친구관계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적응의 세 가지 지표, 즉 학업성취도, 학교에 대한 태도, 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또래지위와 학교적응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라 학업성취도, 학교에 대한 태도, 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앞의 대상 설명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기, 거부, 보통, 무시의 4집단별로 41명씩 무선 선정한 164명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교사가 평정한 학업성취도와 사회적 행동, 아동이 보고한 학교에 대한 태도를 또래지위에 따라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집단간 차이를 F검증 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국어, 수학, 사회, 자연 과목과 전체 평균에서 모두 또래지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 또래지위에 따른 학교적응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F값

(N=164)

학교적응	보통 평균(SD)	인기 평균(SD)	무시 평균(SD)	거부 평균(SD)	F
학업성취					
국어	3.03(.92) ^{ab}	3.45(.75) ^b	3.08(.83) ^{ab}	2.76(.89) ^a	4.57 ^{**}
수학	2.75(.93) ^{ab}	3.28(.85) ^b	3.18(.87) ^b	2.56(.98) ^a	5.68 ^{**}
사회	2.83(.93) ^{ab}	3.33(.76) ^b	2.92(.69) ^{ab}	2.78(.85) ^a	3.73 [*]
자연	2.83(.96) ^{ab}	3.28(.78) ^b	3.00(.78) ^{ab}	2.68(.91) ^a	3.53 [*]
전체 평균	2.86(.86) ^{ab}	3.33(.69) ^b	3.04(.69) ^{ab}	2.70(.80) ^a	5.19 ^{**}
학교태도					
학교에 대한 선호	2.54(.90) ^a	3.00(.54) ^b	2.55(.58) ^a	2.84(.62) ^{ab}	4.50 ^{**}
선생님에 대한 태도	2.96(.88)	3.41(.58)	3.12(.61)	3.27(.73)	2.91 [*]
학업에 대한 태도	2.72(.60)	2.84(.63)	2.76(.46)	2.74(.63)	.31
급우에 대한 태도	3.20(.60) ^{ab}	3.49(.48) ^b	3.11(.57) ^{ab}	3.09(.75) ^a	3.75 [*]
학교에 대한 부정적 감정	2.34(.58)	2.19(.59)	2.49(.52)	2.46(.66)	2.15
태도 총점	2.74(.55) ^{ab}	3.01(.39) ^b	2.71(.34) ^a	2.80(.50) ^{ab}	3.60 [*]
사회적 행동					
친사회성/ 사교성	2.35(.43) ^a	2.71(.42) ^b	2.32(.38) ^a	2.15(.46) ^a	12.27 ^{***}
과활동/ 공격성	1.60(.52) ^{ab}	1.41(.48) ^a	1.57(.54) ^a	1.93(.58) ^b	6.85 ^{***}
불안/ 위축	1.46(.45) ^{ab}	1.42(.45) ^a	1.76(.52) ^b	1.62(.55) ^{ab}	4.06 ^{**}

* p < .05 ** p < .01 *** p < .001 Scheffé 검증 : a와 b간 p < .05

유의한 F값이 어느 집단간의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학'영역에서는 인기아와 무시아의 학업성취도가 거부아보다 높았으며 '수학'영역을 제외한 세 영역과 평균에서는 인기아의 학업성취가 거부아보다 높았다.

아동의 학교에 대한 태도는 5개 하위 영역 중 '학교에 대한 선호', '선생님에 대한 태도', '급우에 대한 태도'의 3영역과 학교에 대한 태도 총점에서 또래지위에 따라 F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기아가 무시아나 보통아동 보다 학교생활을 좋아했고, 급우관계는 인기아가 거부아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학교에 대한 태도 총점은 인기아가 가장 높았고, 무시아가 가장 낮으며, 보통아와 거부

아는 중간에 위치하였다. 즉, 인기아는 무시아에 비해 학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친사회성/사교성', '과활동/공격성', '불안/위축'의 세 영역에서 또래지위에 따라 F검증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사회적 행동은 인기아가 다른 세 집단보다 많이 보여 인기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친사회적이고 사교적이었다. 과활동 및 공격적 행동은 거부아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인기아와 무시아의 점수가 가장 낮아, 거부아가 인기아나 무시아에 비해 과활동과 공격적 행동을 많이 나타내었다. 반면, 불안 및 위축 행동은 무시아가 가장 많이 보였고, 인기아가 가장 적게 보였으며, 거부아와 보

통아는 중간에 위치하여, 무시아가 인기아보다 불안/위축 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친구관계와 학교적응

아동의 친구관계는 학교적응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친구관계 변인과 학교적응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친구관계의 변인으로는 친구의 기능(평균), 갈등, 경쟁, 만족감, 안정성, 상호선택 친구 수를, 학교적응 변인으로는 교사가 평정한 학업성취도와 아동의 사회적 행동, 아동이 보고한 학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표 2>에 이들 변인간의 적률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교사의 평정은 친

구관계 변인 중 상호선택 친구 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급내에서 서로 친구라고 선택한 친구 수가 많은 아동일수록 모든 과목의 학업성취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친구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친구의 기능, 갈등, 경쟁, 만족감, 그리고 안정성과 학업성취도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아동의 학교에 대한 태도는 친구관계 변인 중 친구의 기능,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감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다른 변인들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학교에 대한 태도 총점은 친구의 기능, 만족감, 상호적 친구 수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갈등과는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경쟁 및 안정성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아동

<표 2> 친구관계와 학교적응 변인간의 상관계수

(N=326)

학교적응	친구관계					
	친구기능	갈등	경쟁	만족감	안정성	상호친구수
학업성취						
국어	.06	.03	.00	.04	.01	.15**
수학	.02	.04	.03	.03	.04	.12*
사회	.02	-.02	-.06	.04	-.01	.19**
자연	.02	.03	.03	-.02	.03	.17**
전체 평균	.03	.02	-.01	.03	.02	.18**
학교태도						
학교에 대한 선호	.22***	-.10	.08	.15**	.03	.09
선생님에 대한 태도	.23***	-.03	-.04	.15**	-.02	.15**
학업에 대한 태도	.20***	-.10	.11*	.15**	-.01	.07
급우에 대한 태도	.39***	-.06	.06	.31***	.11*	.26***
학교에 대한 부정적 감정	-.15**	.19**	.08	-.15**	-.07	-.10
태도 총점	.31***	-.16**	.03	.24***	.05	.16**
사회적 행동						
친사회성/사교성	.25***	-.03	-.01	.19**	.16**	.45***
과활동/공격성	-.03	.05	.21***	-.02	-.01	-.25***
불안/위축	-.14*	-.04	-.13*	-.15**	-.13**	-.21***

* p < .05 ** p < .01 *** p < .001

은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 기능을 높게 지각하고 친구관계가 만족스럽다고 느끼며, 학교내에 서로 친한 친구라고 지명한 친구의 수가 많을 때,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나, 친구와 갈등을 많이 느낄 때 학교에 대한 태도가 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에 대한 태도의 하위 변인별로 살펴보면, 학업에 대한 태도는 친구간의 경쟁과, 급우에 대한 태도는 친구관계의 안정성과, 학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친한 친구와의 갈등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학교에 대한 태도 총점에서는 유의하지 않던 친구관계 변인이 학교에 대한 태도의 하위 영역에 따라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친구에게 경쟁적인 아동이 학업성적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 친구와 사귀는 기간이 길수록 일반 급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친한 친구와 갈등을 많이 느낄수록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친구관계 변인 중 갈등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변인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친사회적이고 사교적인 행동은 친구의 기능, 만족감, 안정성, 상호선택 친구 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이 높다고 지각하고 친구에게 만족할수록, 그리고 친구와 교제한 기간이 길고, 서로 친구라고 선택한 상호적 친구가 학교 내에 많은 아동일수록 교사가 평가한 친사회성/사교성 행동이 높았다. 아동의 과활동/공격적 행동은 경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상호선택 친구 수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친구사이에서 경쟁심을 많이 느끼고 상호선택한 친구 수가 적을수록 과잉활동성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불안/위

축 행동은 갈등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변인과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친구의 지원기능, 경쟁, 친구에 대한 만족감이 낮고, 교제기간이 짧으며 상호적인 친구가 적은 아동일수록 불안해하거나 위축된 행동이 높은 것으로 교사는 평가했다. 그러나 친구관계 변인과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는 상호적일 수 있으므로 상관계수의 해석에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불안과 위축 행동이 높게 평가된 아동일수록 친구의 지원, 경쟁, 만족감이 낮고 교제기간이 짧으며, 상호적인 친구가 적은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3.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

아동의 또래경험을 나타내는 또래지위와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어떻게 관련되며, 설명력에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에서 종속변인은 학교적응의 세 가지 지표로서 학업성취도(전체 평균), 학교에 대한 태도 총점, 그리고 사회적 행동 세 가지(친사회성/사교성, 과활동/공격성, 불안/위축)였다. 성과 연령은 통제변인으로 모든 회귀분석에 먼저 투입되었다. 독립변인인 또래지위와 친구관계 변인간 관련성이 발견되었으므로 이 두 변인 세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1차 회귀분석에서 또래지위 집단(양면성을 제외한 4집단)만 더미 코딩해 가변수(dummy variable)로 만들어 분석을 실시하였고, 2차 회귀분석에는 친구관계변인(친구의 기능 평균, 갈등, 경쟁, 만족감, 안정성, 상호선택 친구 수)만을 넣어 분석하였다. 그 다음 3차 회귀분석은 1차, 2차 회귀분석에서 각각 유의하게 나온 변인만을 함께 투입하여 실시하였다. 학교적응의 지표 중에서 학업성취도와 학교에 대한 태

<표 3> 학업성취도와 학교태도를 예언하는 또래지위, 친구관계 변인의 회귀분석

	학업성취도		학교태도	
	예언변인	β	예언변인	β
1차 회귀분석 (또래지위)	성	.08	성	.10
	연령	.01	연령	-.22***
	인기아	.19**	인기아	.18**
	거부아	-.13*		
	$R^2=.08, F=4.70 (df=6, 311) p=.00$		$R^2=.10, F=5.53 (df=6, 316) p=.00$	
2차 회귀분석 (친구관계)	성	.08	성	.09
	연령	.00	연령	-.21***
	상호친구수	.18**	친구기능	.25**
			갈등	-.14*
	$R^2=.04, F=1.42 (df=8, 307) p=.19$		$R^2=.17, F=7.78 (df=8, 312) p=.00$	
3차 회귀분석	성	.08	성	.07
	연령	.01	연령	-.23***
	인기아	.15*	인기아	.12*
	거부아	-.16*	친구기능	.24***
			갈등	-.12*
$R^2=.08, F=5.17 (df=5, 312) p=.00$		$R^2=.17, F=13.21 (df=5, 316) p=.00$		

* p < .05 ** p < .01 *** p < .001

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학업성취도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 2차 분석에서 또래지위 변인($R^2=.08$)의 설명력이 친구관계 변인들($R^2=.04$)보다 약간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3차 분석 결과에서 친구관계 변인인 상호 선택 친구 수가 유의한 변인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전체 설명력($R^2=.08$)의 증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은 또래지위이며, 구체적으로 인기아 집단은 정적 계수를, 거부아 집단은 부적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인기아는 학업성취도가 높았고, 거부아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

그 다음 학교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인인 연령의 효과가 유의했으며, 친구관계 변인($R^2=.17$)의 설명력이 또래지위($R^2=.10$)보다 높았다. 그러나 유의한 변인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설명력의 증가 없이($R^2=.17$) 또래지위 중 인기아, 친구의 기능은 정적 계수를, 갈등은 부적 계수를 나타냈다. 즉, 친구관계에서 사회정서적 지원 기능이 높거나, 갈등이 적을수록 또는 인기아인 경우 학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연령에 따른 효과는 3학년이 4학년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표 4>에서 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행동의 하위요인에 따라 유의한 독립변인은 다르나 공통적으로 또래지위와 친구관계변인이 함께 설명에 기여하며, 성에 따른 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을 볼 수

〈표 4〉 사회적 행동을 예언하는 또래지위, 친구관계 변인의 회귀분석

	친사회성/사교성		과활동/공격성		불안/위축	
	예언변인	β	예언변인	β	예언변인	β
1차 회귀분석 (또래지위)	성	.18***	성	-.38***	성	.19***
	연령	.00	연령	.02	연령	-.02
	인기아	.36***	인기아	-.18**	무시아	.15*
	거부아	-.26***	거부아	.24***		
			무시아	-.11*		
	$R^2=.30, F=22.11$ (df=6, 311) p=.00		$R^2=.27, F=19.57$ (df=6, 311) p=.00		$R^2=.08, F=4.62$ (df=6, 311) p=.00	
2차 회귀분석 (친구관계)	성	.18**	성	-.36***	성	.20***
	연령	.01	연령	.05	연령	-.04
	상호친구수	.42***	상호친구수	-.28***	상호친구수	-.17**
	안정성	.14**	경쟁	.14*		
	$R^2=.27, F=14.19$ (df=8, 307) p=.00		$R^2=.23, F=11.22$ (df=8, 307) p=.00		$R^2=.13, F=5.51$ (df=8, 307) p=.00	
3차 회귀분석	성	.19***	성	-.35***	성	.19**
	연령	-.01	연령	.04	연령	-.02
	인기아	.25***	인기아	-.15*	무시아	.11*
	거부아	-.18**	거부아	.19**	상호친구수	-.18**
	상호친구수	.22***	무시아	-.13*		
		경쟁	.15**			
	$R^2=.33, F=25.79$ (df=6, 309) p=.00		$R^2=.30, F=18.84$ (df=7, 307) p=.00		$R^2=.09, F=7.87$ (df=4, 313) p=.00	

*p<.05 **p<.01 ***p<.001

있다.

첫째, 친사회성/사교성을 종속변인으로 한 결과를 보면, 또래지위의 설명력($R^2=.30$)이 친구관계의 설명력($R^2=.27$)보다 약간 높았으나, 동시에 포함되었을 때 $R^2=.33$ 으로 어느 한 변인을 투입한 경우보다 증가되었다. 또한 1, 2차 회귀분석에서 유의했던 변인이 모두 3차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포함됨으로서 이들이 모두 친사회성 및 사교성의 설명에 기여한다고 하겠다. 여기서 인기아는 정적 계수, 거부아는 부적 계수, 상호적 친구 수와 친구의 안정성이 정적 계수를 나타냈다. 따라서 인기아인 경우이거나 상호지명된 친한 친구가 학급내에 많거나 또는 친한 친구와 사귄 기간이 길거나 여아인 경우

에 친사회적 특성이 높았으나, 거부아는 친사회성 및 사교성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과활동/공격성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효과를 보면, 1, 2차 분석에서 또래지위의 설명력($R^2=.27$)이 친구관계($R^2=.23$)보다 약간 높았으나, 동시에 이들 변인이 포함되었을 때 설명력이 $R^2=.30$ 으로 증가하고 친구관계 변인 중 상호친구 수가 유의한 변인에서 제외되었다. 즉, 과잉활동 및 공격적인 행동은 거부아인 경우 또는 친구관계에서 경쟁심을 많이 느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기아나 무시아의 경우는 적게 나타났다. 통제변인인 성에 따른 효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과활동/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불안/위축은 또래지위의 설명력($R^2=.08$)보다 친구관계의 설명력($R^2=.13$)이 약간 높으나,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설명력은 $R^2=.09$ 로 친구관계의 설명력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불안과 위축 행동은 무시아에게 높은 행동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선택한 친구 수가 적을 때, 그리고 남아보다는 여아일 때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또래 경험의 두 가지 유형인 또래 지위와 친구관계가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밝혀보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학교적응을 학업성취도, 학교에 대한 태도, 사회적 행동의 세 가지 지표로 나누어 연구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학업성취도는 또래지위 집단에 따라 전체 평균과 4개의 교과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체로 인기가 집단이 거부아 집단보다 높은 성취를 나타냈다. 친구변인 중에서는 상호적 친구수만이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나 또래지위 변인과 함께 회귀 분석에 포함된 3차 회귀 분석에서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설명변량의 크기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또래지위의 설명력이 친구변인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또래지위에 의해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으며, 인기가 집단이 거부아보다 높은 성취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또래지위에 의한 학업성취의 예측가능성을 해석해보면, 또래로부터의 수용이나 배척은 또래와 함께 하는 학습과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Ladd, 1990) 특히 인기아들은 거부아에 비해 친사회적이고 사교적이므로 또래간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 받거나 지원해 줄 수 있으므로(Wentzel & Caldwell, 1997) 결

과적으로 학업성취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송종관과 조증열(2000)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의 인기도와 사회적 능력간에는 정적 상관이, 학업부진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나 또래지위에 따른 학업 성취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밖에도 여러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예를 들어, Vandell과 Hembree(1994)는 3학년 아동의 학업성취를 예측한 결과에서 거부아는 부적으로, 상호적 친구의 수는 정적으로 유의한 예언요인이라 하였으며, Diehl, Lemerise, Caverly, Ransay와 Roberts(1998)의 연구는 혼합연령의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 수용도와 상호적 친구의 수가 학업성취의 예측에 의미있는 변인이라고 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Ladd와 그의 동료들(1996)의 연구에서도 상호적 친구와 또래 수용도가 유치원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관련되었으나, 학습준비도의 변화를 의미있게 예측한 요인은 또래 수용도였다고 함으로써 또래 수용도가 보다 강력한 예언 요인임을 시사해주었다. Coleman(1993) 역시 또래 수용도가 초기 학습준비도의 변화에 대해 유의한 예언 요인임을 밝혀내었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상관관계에 기초하므로 관계의 방향을 다르게 한 해석도 가능하다. 즉 학업성취를 강조하는 우리 교육풍토의 특성상

공부를 잘 하는 아동이 또래들에게 인기가 높고, 반면 공부를 잘 못하는 아동을 또래들이 거부하는 경향이 높아 또래지위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가 나올 수 있다. 또래지위에 관련된 요인으로 아동의 인지능력이나 학업성취가 신체적 특성, 사회적 행동 등과 함께 지적된 점(임연진·이은혜, 2000)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학업성취에 대한 친구관계 변인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친구관계 변인 중에서는 상호적 친구의 수만이 유의한 변인이었다. 즉 친구관계의 질이나 만족감, 안정성 등과 학업성취간의 관련성이 본 연구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상호적 친구의 수가 3차 회귀분석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이 변인이 어느 정도 또래지위 변인과 중복되어 있을(redundant)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이는 또래지위와 상호적 친구 수의 관계를 추가 분석했을 때 인기아들의 상호적 친구 수가 거부아보다 많았던 점에서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3, 4학년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또래지위가 더 강력한 예언 요인이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학교적응의 두 번째 지표인 학교에 대한 태도에서 또래지위와 친구관계 변인의 관련성을 보면, 또래지위에 따라 학교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인기아의 태도가 무시아나 거부아보다 긍정적이었다. 친구관계 변인 중에서는 친구의 기능, 만족감, 상호적 친구수는 학교에 대한 태도 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지원 기능이 높고, 만족스러운 상호적 친구관계를 가진 아동이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안정적인 아동은 학급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친밀하고

안정적인 친구와의 관계가 아동 자신이 속한 학급의 교우관계에 대한 태도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친구간에 갈등이 많은 아동은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반면 친구간의 경쟁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학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친구간의 경쟁이 학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된 것은 친구의 사회적 준거 기능과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시기 아동은 자신의 수행을 평가할 때 또래와 친구를 비교의 준거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France-Kaatrude & Smith, 1985) 학업 성취에 관심이 많은 아동은 친구간에 경쟁심을 빈번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회귀분석에서 보면, 친구관계 변인의 설명력(17%)이 또래지위 변인(10%) 보다 높으며, 1, 2차 분석에서 유의했던 변인들이 3차 분석에서 모두 포함되었으나 설명력(17%)에서는 증가가 없었다. 따라서 아동의 학교에 대한 태도는 친한 친구관계에서 사회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거나 친구간 갈등이 적을수록 또는 인기아일 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Ladd(1990)의 연구에서 유치원 입학 당시 학급 내 친구가 많은 아동이 학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했으며 이 친구관계가 유지된 아동이 학기말에 학교를 더욱 좋아했다는 결과와 연결지어 해석될 수 있다. 친구관계는 사회정서적 지원 기능이 높을 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김정윤(2000)은 친구관계가 지원적이고 만족스러울수록 학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친구관계에서의 갈등은 학교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 하였으며, 황경미(1998)의 연구에서도 도움, 친밀, 인정과 같이 지원적 기능이 강한 친구를 가진 아동이 학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했고

학업관련 태도 및 행동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친구관계는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에 기초하여 정서적 안정감, 친밀감, 신뢰, 자아가치의 인정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유대와는 관계가 적은 또래지위에 비해 아동이 학교환경에서 겪는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Ladd, 1996) 나아가 학교를 좋아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추론할 수 있다. 다만 학교에 대한 태도에서 또래지위의 기여는 인기아에게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기아들의 친구관계 질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점이 추가 분석에서 나타났으며, 또한 인기아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가 높고 친사회성/사교성이 높은 점으로부터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인기아들의 긍정적 속성은 자신감과 함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의 적응에서 학교에 대한 태도는 아동이 개별적으로 맺는 친구관계의 질적 요인 특히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 기능과 갈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인기아일 경우에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또래지위와 친구관계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또래지위에 따라 세 가지 행동 영역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친사회적 행동 및 사교성에서는 인기아가 다른 집단에 비해, 과활동 및 공격성은 거부아가 인기아나 무시아보다, 불안 및 위축은 무시아가 인기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관계와 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는 친구관계 변인 중 상호적 친구수, 안정성, 친구의 기능, 만족감, 경쟁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회귀 분석 결과에서 보면, 또래지위와 친구

관계 변인 각각의 설명력 보다 함께 설명함으로써 증가되는 경우가 두 영역에서 있었고, 3차 분석에서는 세 가지 행동 영역 모두 또래지위와 친구관계 변인이 동시에 포함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또래 경험의 두가지 측면이 함께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Vandell과 Hembree(1994)도 상호적 친구 관계망의 수와 또래수용이 가산적으로(additively)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사회·정서적 적응이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친사회성/사교성은 학교에 적응이 잘된 아동의 대표적인 특성으로서 인기아들은 높게 그리고 거부아들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임연진, 1999; Coie, Dodge, & Kupersmidt, 1990)의 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특히, 친구관계의 안정성이 친사회성/사교성의 예언에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친구관계를 만족스럽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친사회적이고 사교적인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행동 중에서 과활동/공격성이나 불안/위축은 적응상의 어려움에 대한 초기 지표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과활동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이 거부아에게 높고 인기아와 무시아에게 낮은 것은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친한 친구관계에서 경쟁심을 높게 느낄수록 과활동/공격성이 높게 나온 본 연구의 결과는, Sullivan(1953)이 일찍이 친구간의 경쟁이 심하면 성격발달에서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친구관계에서 '경쟁'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불안/위축 행동의 예언에는 무시아 집단이 의미있게 기여하며, 상호적 친구 수가 작을수록

불안/위축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으로 서로 친밀하게 느끼는 상호적 친구가 적고 또래 집단으로의 무시되는 아동의 경우 불안과 위축을 가중시켜 적응상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agwell, Newcomb과 Bukowski(1998)의 연구에서도 친구가 없는 것은 우울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집단 수준의 또래수용과 개인 수준의 친구관계, 두가지 또래 경험이 함께 기여함으로써 보다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에 앞서 몇가지 제한점을 지적하면, 첫째 연구의 대상이 서울에서 임의 표집한 1개 초등학교 3, 4학년 아동이라는 점과, 둘째 연구 변인을 횡단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인과관계의 방향에 대해서 명료하게 결론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 적응을 다차원적으로 정의하여 개인적 수준

과 집단 수준의 또래 경험을 통해 예측함으로써 적응의 지표에 따라 각기 기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3, 4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에서, 학업성취는 또래지위에 의해, 학교에 대한 태도는 친구관계의 질적 특성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되며,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또래지위와 친구관계에 의해 의미있게 설명될 수 있다. 즉, 학업성취는 인기아 집단이 거부아보다 높으며, 학교에 대한 태도는 친한 친구로부터 사회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고 친구와 갈등이 적을수록, 또는 인기아일 때 긍정적이다. 또한 친사회적이고 사교적인 행동은 인기아들에게서 그리고 친구관계의 안정성이 높고 상호적인 친구관계가 많을 때 높다. 과활동적이고 공격적인 특성은 거부아들에서 그리고 친한 친구와 경쟁심을 많이 느낄 때 높으며, 불안과 위축된 행동은 무시아에게서 그리고 상호적인 친구가 적을 때 높다.

참고 문헌

- 김정윤 (2000). 아동의 친구관계 질과 학교에 대한 태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종란·조중열 (2000). 초등학생에서 친사회적 도덕 추론, 교실행동 및 인기도와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3(2), 53-64.
- 이은혜·고윤주 (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225-242.
- 임연진 (1999).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정보처리 능력과 사회적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연진·이은혜 (2000).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정보처리 능력과 사회적 행동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38(1), 9-23.
- 황경미 (1998).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elsky, J., Lerner, R. M., & Spanier, G. B. (1984). *The child in the family*. New York : Random

- House.
- Berndt, T. J. (1989). Obtaining support from friend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D. Belle (Ed.),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pp.308-331). New York : Wiley.
- Berndt, T. J. (1999). Friends' influence on children's adjustment to school. In W. A. Collins & B. Laursen (Eds.), *Relationships as developmental context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30 (pp. 85-107). Mahwah, N J : Lawrence Erlbaum.
- Berndt, T. J., Hawkins, J. A., & Jiao, Z. (1999). Influence of friends and friendship on adjustment to junior high school. *Merrill-Palmer Quarterly*, 45(1), 13-41.
- Berndt, T. J., & Keefe, K. (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 1312-1329.
- Berndt, T. J., & Ladd, G. W. (1989).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 Wiley.
-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Berndt & G.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15-45). New York : Wiley.
- Bukowski, W. M., Newcomb, A. F., & Hartup, W. W. (1996). Friendship and its significance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 Introduction and com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1-15).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ie, J. D., & Dodge, K. A. (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 261-282.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17-59).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eman, C. C. (1993). *Relative contributors of classroom friendship and peer status to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Diehl, D. S., Lemerise, E. A., Caverly, S. L., Ransay, S., & Roberts, J. (1998). Peer relations and school adjustment in ungraded primary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0(3), 506-515.
- France-Kaatrude, A., & Smith, W. P. (1985). Social comparison, task motiv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elf-evaluative standards i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80-1089.
- Germezy, N., Masten, A. S., & Tellegen, A. (1984). The study of stress and competence in children : A building block f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Development*, 55, 97-111.
- Hartup, W.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 1-13.
- Howes, C. (1988). Peer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3(1, Serial No. 217).
-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 (1990). The role of poor peer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274-305).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dd, G. W. (1990). Having friends, keep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being liked by peers in the classroom : Predictors of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1, 1081-1100.
- Ladd, G. W. (1996). Shifting ecologies during the 5 to 7 year period : Predicting children's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grade school. In A. Sameroff & M. Haith (Eds.), *The five to seven*

- year shift(pp. 363-386).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dd, G. W., & Hart, C. H. (1992). Creating informal play opportunities : Are parents' and preschoolers' initiations related to children's competence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179-1187.
- Ladd, G. W., & Kochenderfer, B. J. (1996). Linkages between friendship and adjustment during early school transitions.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pp. 322-345).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7). Classroom peer acceptance, friendship, and victimization : Distinct relational systems that contribute uniquely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8, 1181-1197.
- Ladd, G. W., & Price, J. M. (1986). Promoting children's cognitive and social competence :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ask difficulty and children's perceived and actu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7, 446- 460.
- McGuire, K. D., & Weisz, J. R. (1982). Social cognition and behavior correlates of preadolescent chumship. *Child Development*, 53, 1478-1484.
- Newcomb, A. F., & Bagwell, C. L. (1996). The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children's friendship relations.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pp. 289-321).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Snyder, J., & Dishon, T. J., & Patterson, G. R. (1986).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associating with deviant peers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6, 29-43.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 Norton.
- Vandell, D. L., & Hembree, S. E. (1994). Peer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 Independent contributors to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0, 461-477.
- Wentzel, K. R., & Caldwell, K. (1997). Friendships, peer acceptance, and group membership : Relations to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Child Development*, 68, 1198-1209.